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4년도 제47호

### 체육시민연대 논평

**국회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무력화는 정녕 학생선수를 위한 일인가 2024.12.02**

### [진종오-신동욱 의원발의]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요청 불이행시 재정지원 2년 제한" 문체부,체육단체 관리감독 실효성 강화  
법안,문체위 통과**

전영지 스포츠조선 기자

### '이기흥 3선 저지' 공동 목표 재확인

**'단식 열흘째' 박창범 찾은 유승민 "대한체육회, 한 명이 문제"**

이대호 연합뉴스기자

### 국가대표 등 선발지원보호 및 대한체육회 운영 등에 대해 특별감사 착수

**[속보] 감사원, 대한체육회 운영 감사 착수..비리 제보 받는다**

서정은 헤럴드경제 기자

### 기자회견 열고 허위사실 명예훼손..1·2심 모두 벌금 300만원

**폭력으로 징계받자 체육회장 비난..해임 간부 항소심도 '유죄'**

정경재 연합뉴스 기자

### 올해 남자프로농구 첫 80년대생 감독 시대를 연 김효범 서울삼성 감독

**"승리도 행복도 포기 못 해"..."닝만 리더십"의 탄생**

남지은 한겨레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보도자료



배 포 2024년 12월 02일(월)

보도일시 2024년 12월 02일(월)

전 화 02) 2279 - 8999

홈페이지 [www.sportscm.org](http://www.sportscm.org)

## 논평

### 국회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무력화는 정녕 학생선수를 위한 일인가? - 국회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에 부쳐 -

2024년 11월 29일 국회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초·중학교 학생선수들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인 e스쿨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최저학력제를 무력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최저학력제가 무력화될 경우 학생선수의 공부 경시와 운동 편중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선수 저변의 확대를 가로막고 국가 스포츠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은 헌법에서 보장된 교육권을 위한 기본전제이며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2000년 중학생 수영 국가대표 장희진 선수가 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 선수촌을 이탈한 것을 두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없다며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한 사건은 대한민국 학원 스포츠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우리 결의 학생선수는 수십 년간 교실에서 아예 볼 수 없거나, 대놓고 잠을 자도,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 학생 아닌 학생으로 존재해 왔다. 학생선수는 대다수 학생과 다른 삶을 사는 존재였고, 지식이 부족한 존재로 각인되었다. 체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현실은 애써 외면한 채 ‘국위선양’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 여겼다.

최저학력제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와 관련한 현실 파악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속의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으며, 2007년 10월 31일, 국회는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촉구결의안’으로 화답했다. 이어 2007년 12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통해 “학원 스포츠의 구성 주체들을 성적지상주의와 과잉 경쟁의 구조로 내모는 국가의 엘리트 스포츠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를 비롯한 학습권 보호 대책의 수립을 권고했다.

이후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교육부는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해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장기적으로 ‘최저학력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학원체육 정상화 방안”에 최저학력제를 포함하였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2008년 10월 25일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과 정부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을 함께 했다.

2009년 본격적으로 학교체육법 제정 검토가 시작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0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계획」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도입을 보고받고,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에서도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 대상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의 조치를 확인했다. 이는 곧 제18대 후반기 문방위 정책자료집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저학력제를 구체화하고, 201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선수의 학력 증진 지원방안에 대해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시스템 구축과 학생선수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도 강화로 구체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1월 국회는 학교체육진흥법을 제정하고, 최저학력제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최저학력제의 실질적인 시행이 지지부진하였으나 2019년-20년 한시적으로 운영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21년 3월 23일, 학교체육진흥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2024년 1학기부터 전면적인 시행이 예고되었다. 하지만 현장의 반발로 한 학기를 미룬 2024년 2학기부터 시행되게 된 것이다.

최저학력제 시행 결과, 3,675명의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달하여 출전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당장 출전이 금지된 학생선수들과 관련 있는 일부 체육인들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최저학력제 폐지 움직임이 일어났다. 일부의 불편한 현실이 대한체육회 등록 10대 선수 154,207명, 혹은 초, 중, 고 학교운동부 68,072명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현장의 노력과 인식을 위협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이번 출전금지조치가 내려진 학생선수는 등록 10대 선수 기준 2.4%, 학교운동부 기준 5.4%에 지나지 않는다. 2014년 23.9%에 이르던 출전금지 대상자가 정부의 최저학력제를 비롯한 학습권 보호 기조가 자리를 잡으면서 성과를 내던 참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최저학력제는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권에 기반하여 최저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선수들에게 학업 수준 증진을 위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선수가 온전히 학업-운동을 병행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소 학업에 흥미가 없는 이들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학습권 정책이 학생선수들에 대한 지원책이 아니라 출전금지라는 불이익 처분에 방점이 찍히게 된 것도 실질적으로 학생선수에게 학업이 필요치 않아 학생에게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했고, 학업이 불필요하다는 지도자들에게도 학업 보장의 강제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학원스포츠 현장에서 학업 병행은 어려운 과제였으며, 인식 전환이 절실한 부분이 존재했다.

그나마 희망적인 지점은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선수 전수조사에서 나타났는데, 학업-운동의 병행 필요성이 중학생 77%, 고등학생 65%에 이르며, 이 중 '기본 교양과 지식을 배우기 위해' 중 35.6%, 고 24.9%,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기 위하여' 중 26.5%, 고 29.2%, '최저학력제 대비를 위하여' 중 19.2%, 고 13.4%, '대학진학을 위하여' 13.3%, 고 27.4% 등으로 조사된 바, 학생선수들은 운동에만 몰입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도 공감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학업을 하고자 해도 운동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거나 학생선수라는 이유로 학업을 권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현장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 정책은 실패한 것이 된다. 이제 단언컨대, 더 많은 지도자들이 운동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학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학생선수가 있다면, 노골적으로 실효성도 없는 e스쿨로 때울 것을 종용할 것이다. 이제 다시 과거와 같이 학업으로부터 방치되는 학생선수들을 보게 될 것이며, 과거와 같이 '다른 삶을 사는', '지식이 부족한 집단'으로서의 학생선수의 이미지는 더욱 깊게 각인될 것이다.

또한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로 조사된 운동선수라는 매력적인 직업에도 불구하고, 오늘내일하는 우리나라 스포츠의 빈약한 저변은 학업-운동 중 양자택일의 불합리한 선택 속에서 더욱 황폐화될 것이다. 오늘 국회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최저학력제를 무력화한 결정은 바로 우리나라 스포츠 저변의 확대를 가로막은 것에 다름아니며, 이는 곧 국가 스포츠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동안 학습권 문제를 다루며 최저학력제 무력화 법안을 추진한 의원들의 입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령 어디에도 없는 '운동권'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헌법상 권리인 '학습권'과 동등하게 사용하는 행태를 보여왔고, '차별'을 들먹이며, 음악, 미술과 비교하거나 고등학생과 초, 중학생이 차별이 일어난다며 교육기본법상 의무교육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아주 극소수"만 살아남는다는 학원스포츠의 냉혹한 현실에 대한 한 의원의 지적에 운동을 그만두는 "그때부터 배우면 돼요."라고 대꾸하는 또 다른 의원의 심각한 문제의식에 좌절하며,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 차원에서 학생선수들이 겪게 되는 일부의 사정이나 출중한 선수에 대한 대승적 차원에서의 배려 혹은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면 교육감의 재량이나 구제 위원회의 설치로도 충분한 사안이였음에도 아예 최저학력제라는 법안 자체를 무력화하면서 추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일은 벌어졌고, 현실은 남은 자들의 몫이다. 최저학력제를 무력화시킨 국회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유감을 표하며, 이에 앞장서거나 지지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2024년 12월 02일

체육시민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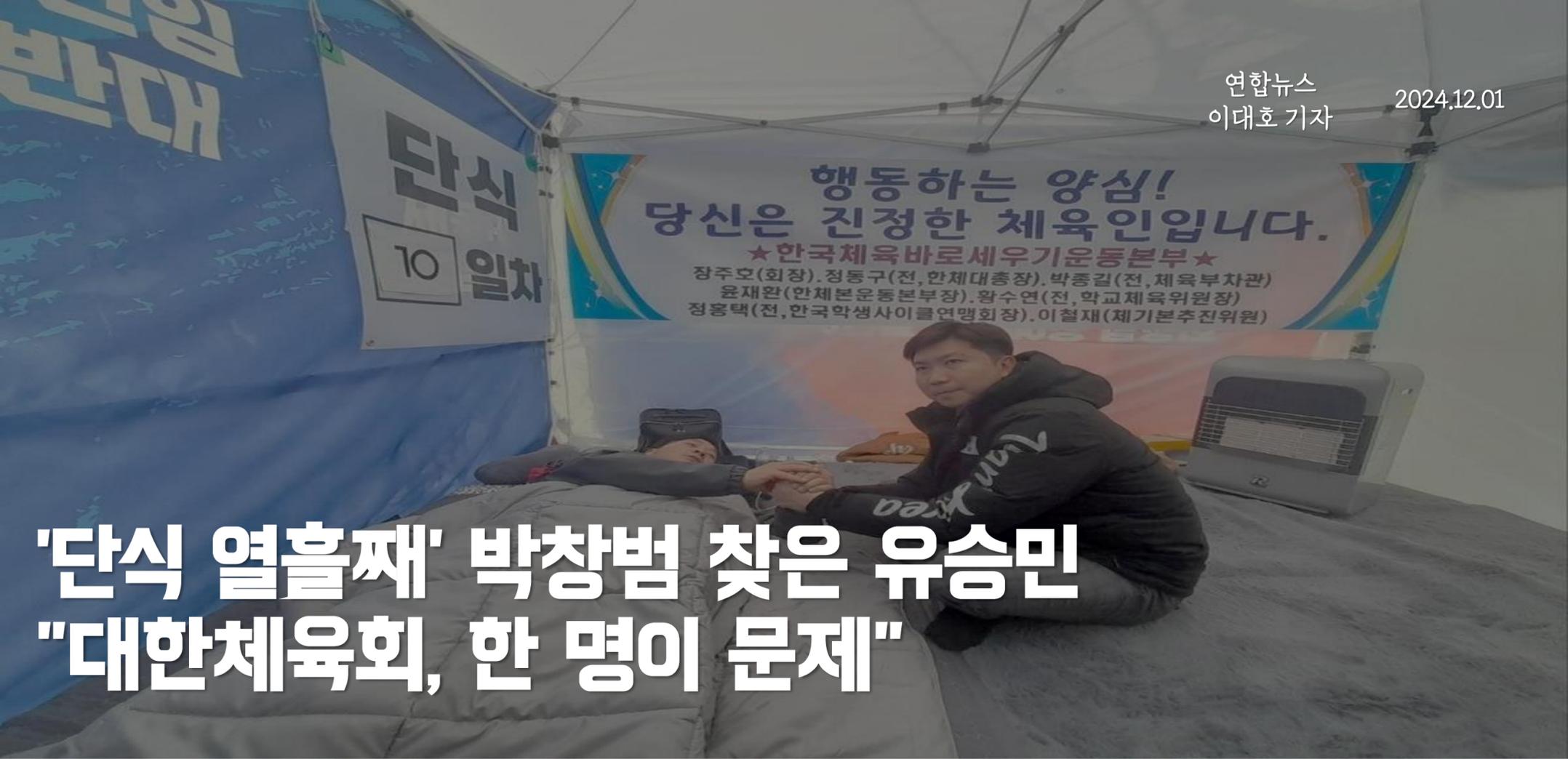
#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요청 불이행시 재정지원 2년 제한" 문체부,체육단체 관리감독 실효성 강화 법안,문체위 통과 [진종오-신동욱 의원발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가 2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골자는 최근 체육단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문체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문체위는 진종오 의원과 신동욱 의원(이상 국민의힘) 등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윤리센터 관련 법안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7건을 문체위 대안(수정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상임위 대안은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표결된다. 현행법상 문체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으로 체육단체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징계의 실질적 권한이 해당 체육단체에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제2조에서 '체육계 인권침해'(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정의하고 '인권감시관' 호칭을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했다. 또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시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했다. 제18조에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문체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요구권을 확대하고, 보완 요구 및 재심의 요구 등 관련 절차 규정을 보완했다. 징계 요구의 실효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문체부는 징계요구에 그치지 않고 개별 체육단체에 대한 권고 시정명령과 보완 및 재심의 요구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마련 징계 요청 불이행시 재정 지원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 '단식 열흘째' 박창범 찾은 유승민 "대한체육회, 한 명이 문제"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이기흥(69) 현 대한체육회장의 3선 출마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박창범(55) 전 우수협회장을 찾아 '이기흥 3선 저지'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유 전 회장은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앞에서 열흘째 단식 중인 박 전 회장을 찾아 "건강을 챙겨야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단식 기간이 길어서 걱정된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박 전 회장이 "잘못된 것을 막으려면 (체육회장)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유 전 회장은 "맞다. 지금 대한체육회는 한 명 때문에 문제"라고 이 회장을 겨냥했다.

이들 둘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유 전 회장은 3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참이다.

지난달 22일 세워진 박 전 회장의 단식 투쟁 텐트에 '반이기흥 연대' 인물들이 찾아와 뜻을 함께 나눴다.

강신욱(68) 단국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25일 가장 먼저 찾았고, 강태선(75) 전 서울시체육회장이 28일, 안상수(78) 전 인천시장이 29일 각각 박 전 회장을 만나 위로했다.

이들은 모두 체육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진종오(45) 국민의힘 의원, 30일에는 안민석(58) 전 의원이 방문하는 등 전·현직 국회의원의 방문도 이어졌다.

# [속보] 감사원, 대한체육회 운영 감사 착수... 비리 제보 받는다

감사원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체육회 등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7일 '국가대표 등 선발·지원·보호 및 대한체육회 운영 등에 대해 특별감사 착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자료수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9월 '대한체육회의 업무 부적정'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그 다음달 '문화체육관광부의 위법·부당한 체육업무 시정'을 놓고 공익감사청구하는 등 갈등을 빚자 감사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최근 들어 국가대표 지도자·선수 선발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선수훈련·활동 지원과 부상·인권침해 등에 따른 보호에 대해 불공정한 계약과 적시성 논란이 불거졌다"며 "이를 총괄하는 대한체육회와 산하 종목단체 등의 운영에 있어서도 국회·언론에서 권력독점과 예산 부당집행 의혹 등이 계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대한체육회장 등이 각각 청구한 공익감사청구 사항 중 확인·검토가 필요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에서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선수 등이 겪은 부조리나 인권침해 등 피해는 물론 대한체육회와 산하 종목단체의 운영상 비리도 제보받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체육계의 고질적·구조적 문제는 물론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폭력으로 징계받자 체육회장 비난... 해임 간부 항소심도 '유죄'

과거 저지른 폭력 사건으로 전북도체육회에서 해임되자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전북체육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체육회 간부 A(5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전북체육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직원들에게 상급자인 나를 경찰에 고소하도록 했다"면서 "또 스포츠윤리센터에 민원을 넣고 사건을 언론에 제보해 체육회 직원들의 분열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체육회 직원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공금의 부적정 사용 등의 비위가 불거져 해임된 상태였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체육회의 인사상 처분 과정은 '인권유린'에 가까웠다"면서 전북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이 자신의 징계를 주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반면 전북체육회는 "A씨에 대한 처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와 인권 전수조사, 자체 특별감사, 인사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서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기자회견장에 있던 체육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발언해 전북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당시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근거가 없는데도 기자들 앞에서 피해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판이 적지 않게 손상됐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항소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80년대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로 해당 종목에서는 널리 알려져 오랜 세월 체육계에 몸담은 인물이다.

# “승리도 행복도 포기 못 해”... ‘낭만 리더십’의 탄생

프로농구 서울 삼성의 훈련장에는 눈에 띄는 광경이 있다. 감독이 선수들과 함께 코트를 누빈다. 패스를 해주기도 하고 가끔은 슛도 쏜다. 감독은 선수들의 훈련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평가하는 사람 아니었다. “같이 땀 흘리고 좋죠. 하하.” 그게 뭐가 별일이냐는 듯 멋쩍어하는 이 사람, 남자프로농구(KBL) 첫번째 80년대생 사령탑 김효범(41·1983년생) 감독이다.

프로스포츠에 80년대생 감독 바람이 불고 있다. 2020년대 들어 시도됐는데 올해 4대 스포츠에 모두 번졌다. 배구가 시작이었다. 정관장 고희진 감독(1980년생), 대한항공 토미 킬리카이넨 감독(1987년생), 한국전력 권영민 감독(1980년생)이 각각 2020년, 2021년, 2022년부터 지휘봉을 잡았다. 축구는 지난 4월 사임한 최원권(1981년생) 대구 FC 감독이 2022년 11월 80년대생 감독 시대를 연 이후, 올해 수원 삼성 염기훈 감독(1983년생), 전북 현대 김두현 감독(1982년생)으로 이어졌다. 야구는 올해 처음 1981년생 수장(KIA 이범호)이 탄생했다.

여자농구(WKBL)는 신한은행 구나단(1982년생) 감독이 2022년 스타트를 끊었지만, 남자 농구는 김효범 감독이 처음이다. 최근 고양 소노도 1984년생 김태술 감독을 선임하면서 젊은 감독 바람은 거세지고 있다. 농구계 한 인사는 “소통이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선수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젊은 감독들이 관심 받는 것 같다”고 했다.

선수들과 함께 뛰며 틀을 허문 김효범 감독도 소통하는 ‘낭만 리더십’으로 주목받는다. 김효범 감독이 작전 타임 때 선수들을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사기를 북돋우는 장면을 담은 영상들은 인기다. 옥박지르고 짜려보는 감독에 익숙했던 농구팬들은 이를 ‘낭만 작전 타임’이라고 부르며 환호한다. 지난 18일 용인 삼성트레이닝센터에서 만난 김효범 감독은 “선수들이 행복하게 농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행복해야 집중할 수 있다”고 했다.

행복 추구 80년대생 감독들은 그래서 팀 분위기 조성부터 신경 쓴다. 김태술 감독은 최근 첫 연습 때 “음악도 틀어 놓고 즐겁게 (하자)”라고 말해 선수들을 놀라게 했다. 김효범 감독이 올해 정식 감독이 되면서 선수들에게 전술에 앞서 먼저 주문한 것도 이 4가지다. “이해심·배려, 행복, 존중, 선의의 경쟁.” 김효범 감독은 “농구는 팀 스포츠인 만큼 이 문화부터 정립되면 전술적인 부분도 구상한 대로 잘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경기 외적인 부분도 신경 쓴다. 이범호 감독은 선수의 아내 생일에 꽃을 선물했다. 권위를 벗어던지고 인간적으로 다가가려는 80년대생 감독들의 소통 방식이다. 누군가 내게 마음 쓰고 있다는 생각은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 김효범 감독도 선수의 생일을 챙긴다. “하지만 이범호 감독님이 선수 아내까지 챙기는 것을 보고 ‘난 아직 더 배워야겠구나’ 했어요. 이제는 선수의 딸도 챙겨보려고요. 하하.”

이런 철학은 선수 시절 다양한 경험에서 기반한다. 스타 선수 출신인 80년대 감독들은 권위적인 위계질서 속에서 운동했다. 김효범 감독은 그러면서 “옥박지른다고 선수의 성향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범호 감독도 프로 데뷔 뒤 수비 실책 등으로 가슴앓이를 많이 했던 터라 잘 안 될 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김효범 감독은 “연패하면 선수들이 감독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스스로 위축된다. 그럴 때 감독으로서 인내하면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효범 감독은 사령탑 제안을 받았을 때 나이가 어린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다고 한다. “여러 감독님들이 제 의견을 물어봐 주는 등 많이 도와주신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보수적인 스포츠 세계에서 어린 감독의 등장은 때론 존중받지 못하기도 한다. 지도자 경험이 거의 없는 김태술이 소노의 새 사령탑으로 임명됐을 때도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다. 80년대생 감독들이 전술없이 철학만 내세운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결국 성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범호 감독은 올해 부임 첫해에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형님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김효범 감독이 이끄는 삼성은 시즌 초반 부진하다. 27일 현재 2승9패(10위). 김효범 감독은 전술의 핵심이었던 이대성이 부상으로 뛰지 못하면서 비시즌 준비한 전략을 써먹지도 못했다. 이대성이 부상을 입으면서 준비한 전술의 50%가 날아갔다. 2라운드에서도 ‘판’을 뒤집을 놀라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김효범 감독은 “휴식기 때 훈련 방식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준비했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선수를 존중하고 인권을 생각하는 김효범 감독의 가치관을 응원하는 이들은 많다. “한국 농구에도 이런 감독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도 한다. 다양성이 결국 리그를 더욱 풍성하고, 발전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김태술 감독까지 합류하면서 80년대생 감독들을 위한 응원의 목소리로 나온다. 한 프로농구팬은 개인 블로그에 “이기는 것도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무시하지 못한다 (...) 나는 이 팀(삼성)이 패배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과 느낌을 줄 수 있는, 좋은 감독이자 팀이라고 생각한다”며 “응원한다”고 썼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체육 기자 출신 성백유 전 언중위원, 韓 장애인수영연맹 회장 선출

[https://www.nocutnews.co.kr/news/6253206?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1202030407](https://www.nocutnews.co.kr/news/6253206?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1202030407)

충북농협, 학생 체육용품 구매 지원금 7500만원 기탁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2\\_0002980231](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2_0002980231)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위해 결의 다지는 정강선 체육회장

<https://www.news1.kr/photos/7015356>

"금호강변 일대 체육 시설 개선" 대구 동구, 지저둔치체육시설 개장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2\\_0002980147](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2_0002980147)

울주군국민체육센터, 2년 연속 문체부 우수공공체육시설 선정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2043200057?input=1195m>

[포토] 박창범 전 우슈협회장, 이종걸 전 의원 권유에 단식중단 결정

<https://www.inews24.com/view/1789373>

'펜싱' 오상욱, 모교와 대전시체육회에 기부금 3000만원 전달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02/130548281/2>

검찰, 진천선수촌 압수수색... '이기흥 체육회' 수사 본격화(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8074352004?input=1195m>

광주 시립무등체육관 수영장 시민들 '외면'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20209154676526>

# 체육시민연대

##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